노동자들의 든든한 건강 골키퍼

㈜올품 | 김태연 보건관리자

글·사진 신경린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이달의 한 마디

"보건관리자는 건강 필드의 수문장으로
노동자의 건강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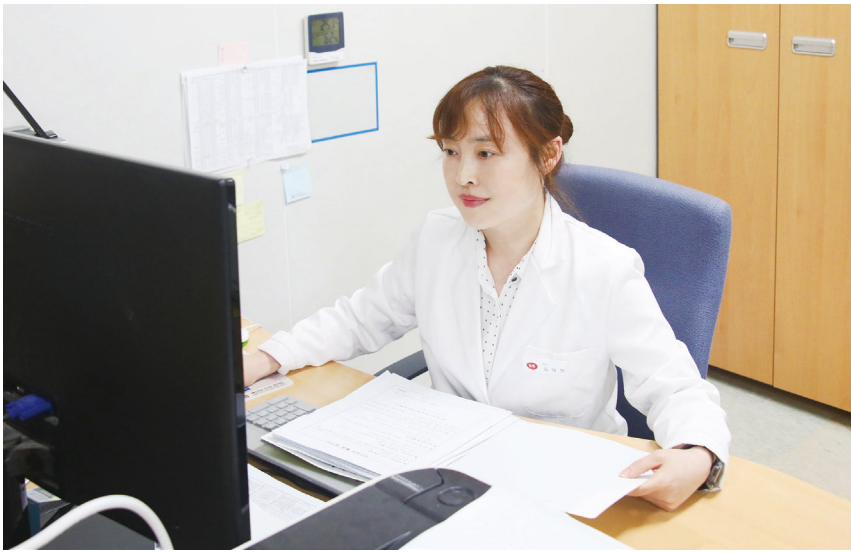
**올품은 '올바른 품질의 우리 닭고기'란 뜻으로
하림그룹 계열 업계 2위 닭고기 가공 회사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노사 공동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도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김태연 보건관리자는 올품 보건 필드의 산증인으로
노동자의 건강 골키퍼를 자처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보건관리자

2001년 경북 상주에 문을 연 올품은 부화장과 사료공장을 통합 운영하는 곳으로 노동자 수는 800여 명에 이른다. 2003년 올품에 입사한 김태연 보건관리자는 올품의 첫 보건관리자로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전무했던 보건부문 지침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스스로 수립해야 했던 것. 이때 간호사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매뉴얼 수립에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며, 그의 손길 덕분에 건강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높아갔다.

"제가 유를 창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건강한 일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간호사로서의 사명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고 자부해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활동에 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태연 보건관리자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다. '교육이 행동을 바꾼다'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신념으로, 노동자들의 올바른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존재가 보건관리자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까닭에 현장 및 휴게실 순회 점검에서, 노동자 건강상담에서 노동자들의 습관과 행동을 관찰하는 김태연 보건관리자의 눈빛은 유독 반짝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언제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열린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것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이다. 노동자와 건강 고충을 나누고 공감하다 보면, 노동자 직무스트레스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김태연 보건관리자의 설명이다.



올품 보건 필드의 건강 수문장

축구 필드에 빗대 보건관리자를 설명하자면, 보건관리자는 골키퍼 포지션이 된다. 유니폼, 착용 장비를 비롯한 경기의 적용 규칙이 다른 포지션과 차이가 나지만 선수들 가장 뒤에서 팀 전체를 조율하며 골문을 막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이다. 즉, 안전보건 문제 발생 전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관리자인 셈이다. 축구 필드에서 골키퍼가 없으면 안 되듯이, 올품 보건 필드에선 김태연 보건관리자가 없으면 안 된다.

“보건관리자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노동자와 진심 어린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안전사고를 막도록 하고, 상황에 맞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노동자가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죠.”

올품이라는 광활한 필드를 살피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올품 보건 필드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중이다. 김태연 보건관리자는 그중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출장 검진의 ‘현장 입력시스템’을 꼽는다. 현장 입력시스템 덕분에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PC와 모바일로 언제든 필요할 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는 노동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노동자와의 건강상담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증진 활동

올품은 노동자들의 건강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복날 성수기 전 노동자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비타민 Day' ▲당뇨병 및 고지혈증 예방을 위한 '올품 건강증진 프로그램'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건강 이벤트' ▲대상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한 '건강 생활 체조'는 노동자의 호응이 유독 높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다. 3개월간 옥상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댄스 프로그램으로,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전후 혈압 및 체성분 측정과 함께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근육량도 증가하는 등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실컷 웃으며 땀 흘리니까 스트레스도 말끔히 씻겼다는 참가자들도 많았죠.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태연 보건관리자는 그 일환 중 하나로 하반기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노동자들의 나이, 성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각도의 방향에서 여러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다짐이다. 20여 년을 꼬박 올품의 건강 골키퍼로 활약해 온 김태연 보건관리자. 그 다짐은 올품 보건 필드의 내일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